

‘함께 하는 봉사, 3지역’

새서울, 서서울, 서울안암, 서울남산, 서울상록, 서울예장,
서울아르떼, 서울양정월악, 서울하원, 서울화인



3지역대표 서창우(서울남산RC)



저는 로타리클럽과 어릴 때부터 인연을 맺어 아주 익숙한 편입니다. 연말 송년회에 부모님을 따라 다니면서 신기해 하던 성금동의 바구니, 종, 사찰띠 등 많은 기억들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아버님은 분구는 되었지만 여전히 3640지구 로타리 회원 이시고, 저 또한 1977년에는 강남 영동 유스호스텔에서 거행한 제 1회 로타리 청소년리더십캠프(라일라)에 참가한 경험도 있습니다.

1992년에 서울교동로타리클럽에 창립회원으로 입회를 하였으니 제 나이에 비해서는 상당히 일찍 한 편이나, 2003년에 서울남산로타리클럽으로 소속 클럽을 옮기고 나서야 로타리에 대해서 알아가기 시작했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로타리를 잘 알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교육과 소속 클럽의 분위기나 선배님들의 가르침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구임원으로서 일은 2010년 중간에 공석이 된 인터랙트위원장을 대신 맡으면서 시작하여, 지구에서 2015년까지 6년간 신세대 위원회 임원으로서 청소년들과 교류를 담당 했었습니다.

그러다 2016-17년, 2017- 18년 2년간 연속 3지역 대표를 맡고 있지만, 3지역 클럽회장님들의 열정적인 도움으로 여전히 매일 재미있게 함께 봉사하고 있습니다.

저희 3지역은 3650지구에서 항상 제일 많은 클럽과 회원 수를 가지고 또 가장 활발하게 봉사를 하는 3650지구의 대표 지역입니다.

또 서울예장RC, 서울아르떼RC 처럼 예술 문화 회원들이 많아 지구의 많은 행사들을 도와 왔습니다. 또, 한국 로타리 장학문화재단 기부액 1위인 서울남산RC도 있고, 새서울RC, 서서울RC처럼 50년이 훌쩍 넘는 명문클럽들도 있습니다.

지난 2016-17년도까지만해도 14개 클럽 408명의 회원이었으나 금회기들어 서울소통, 서울뉴광진, 서울새노원, 서울인터코리아 등 4개 클럽을 타 지역으로 이관 시키고 지금은 10개 클럽 220여명 회원들이 오늘도 함께 봉사를 합니다.

3지역은 각각의 클럽 봉사와 지구 차원의 봉사 이외에도 해마다 2~3개의 지역 공동봉사사업을 함께 해 왔습니다. 지금도 새서울로타리클럽 주관으로 6지역과 함께 어르신 주거 정서 환경 개선 봉사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에는 새서울RC 이정수 회장님과 다른 클럽 회장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당초 계획보다 훨씬 많은 2천만원 이상이 모금되어 훨씬 많은 노인들께 혜택이 돌아갈 예정입니다.

내년에는 더 많은 도움을 주기 위해 로타랙터들과도 함께 봉사하기 위해 합동 일일 찾집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3지역은 이외에도 해마다 도서지역 전립선 무료검진 봉사와 장애인들을 위한 스페셜올림픽을 후원합니다. 3지역 모든 클럽회장님들 항상 감사합니다!



새서울 로타리클럽

50년 전통 위에 새로운 창조와 통합의 역사를 쓰는 명품클럽



글. 새서울RC 회장 이정수



새서울로타리클럽은 1968년 3월 30일에 창립되어 50주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으며 지구총재, 지역대표, 지구위원장, 총재특별대표 등 많은 지구 지도자와 임원을 배출하였습니다. 회원 26명과 요네야마위성클럽 12명 회원으로 총 38명의 회원이 있습니다. 그동안 양정월약RC, 하원RC, 서울C&C RC도 창립되었습니다.

새서울로타리클럽의 특징을 크게 두 가지로 나눈다면, 클럽의 외적으로는 일본 에도가와RC, 센다이RC와 홍콩 구룡RC, 대만RC 과의 자매클럽들과의 활발하고 친밀한 교류를 들 수 있고, 지역봉사로서는 마포 사랑의 전화에서 독거노인 점심배식과 지원을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또한 2017. 12월에는 신개발봉사 프로젝트를 개발하여 3.6지역 17개 클럽과 함께하는 공동봉사인 {어르신 주거. 정서환경개선봉사}를 주최하였으며 이 주거환경봉사는 곧 시행단계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노인돌봄 캠페인을 통해 독거노인의 주거환경과 정신건강을 돌보아 로타리 봉사에 있어서 사회적인 패밀리투게더를 실천하고자 합니다.

클럽 내부적으로는 월 1회의 주회 외에 매주 다양한 동호회를 통해 회원들의 결속과 더불어 수준 높은 문화적 경험으로 클럽생활의 즐거움을 갖도록 하고 있습니다. 골프동호회 '동심회' 는 안정적으로 클럽동호회로 정

착하였고, 2013년부터~ 현재2018년까지 매달 압구정 CGV서 모인 {새서울 씨네마로타리}에서는 회비 1만원으로 식사를 제공과 현재까지 총55편의 영화를 감상했는데 함께 영화평을 나누면서 회원간 세대를 아우르는 추억과 결속력을 다지게 되었습니다. 또한 2017년에 신설된 새서울 문화동호회인 {새서울 몸. 맘.꿈 culture}에서는 포럼과 연극, 전시회, 일일여행 등으로 문화적 다양성의 지평을 넓히고 공유합니다. 새서울로타리클럽은 앞으로도 로타리안의 풍부한 경험을 가지신 원로회원들과 새로운 세대간의 통합으로 더욱 활성화된 클럽이 되어 클럽에서 삶의 의미와 즐거움을 찾는 것과 더불어 더 나아가 사회에 봉사하는 로타리안의 역할을 다하고자 합니다.

□ 한국장학문화재단 및 RI 재단 기여 현황(2017.12.31현재)

* PHF /286.2구좌(\$1,000) + BNF /56 구좌(\$1,000)

* 로타리 장학금 기부금액 / 212명 223,108,000원

□ 자매결연클럽: Sendai-North RC (2520지구, 일본)

Tokyo-Edokawa RC(2580지구, 일본)

Kagoshima RC(2730지구, 일본)

Kowloon East(3450지구, 홍콩)

Taipei West RC (3480지구, 대만)

□ 클럽 자체 사무실 보유: 1989년 매입 □

새서울RC 소유재산 임

소재 : 서울시 마포구 토정로37길 46 정우빌딩 214호



‘3650지구의 불가사의’ 서울남산로타리클럽



글. 서울남산RC 총무 안영균

‘매니아’와 봉사 활동

서창우 지역대표의 감언이설에 넘어가 로타리클럽에 들어온 지 벌써 9년째다. 생소한 로타리 용어에 하나 둘 적응해 가면서, 처음에 로타리주회는 매주 금요일에 열리는 게 정상인가 보다 하고 지냈다. 그런데 생각해보니 30년을 넘게 그렇게 한결같이 매주 금요일 점심에 만나고, 국민의례로 시작하여 연사님의 말씀으로 마치는 주회를 갖는 게 정말 쉬운 일이 아니겠구나 느껴진다. 더욱이 서울남산로타리클럽을 창립한 Charter 멤버만 열네 분이나 되는 양반들이 여전히 매주 출석한다는 사실이 신기하다 못해 존경스러워지기 시작했다. 문덕환 전 총재 같은 분은 30년 넘게 주회 출석률 100%를 초과하고 있다.

도대체 무엇이 이 분들을 이렇게 열심이게 만드는 것일까? 매주 열리는 주회와 별도로 한 달에 한번 갖는 야간주회에도 항상 20명이 넘는 회원이 모이고, 골프도 매달 세 팀 이상 꼬박꼬박 출장한다. 수시로 번개모임도 갖는다. 현 서상준 회장이 35대 회장이니 현 회원의 약 65 퍼센트가 회장으로 봉사한 경력을 갖추었다. 그런데도 여전히 평균 주회 출석률이 60 퍼센트를 상회하는 것은 전임회장들께서도 일단 회장 임기가 만료되면 평회원으로 돌아가 성실히 출석하시는 덕택이다. 10년도 전에 회장을 지내신 분들이 친목 위원장이며 송리터를 맞아 굳은 일 마다하지 않고 열심히 봉사하신다.

2017년 9월말 현재 PHF 548개, 인다우먼트 532개, 한국로타리장학문화재단 기부금 누계액이 26억 43백만원으로 전국 1위를 유지하는 등 기부 활동도 월등하다.

구자두 전 총재님과 신용극 전 회장님은 RI의 아치트럼프 멤버에 등극하셨다. 매년 실시하는 전립선 봉사활동은 권성원 박사님의 주도로 진행되고, 영락애니아의 집에는 매년 특수 제작된 전동휠체어 기증과 식사 보조 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창립 30주년 기념으로 네팔 벽촌에 도서관을 건립하는 사업을 수행하였고, 조선족 어린이 기형 교정 수술 지원 등 전설처럼 내려오는 봉사 미담은 기억하기 힘들 정도로 많다. 매년 RI 세계대회에는 꼬박꼬박 열명 이상 규모의 대표단을 보내고, 대만 에버그린 로타리클럽, 동경 아오야마 로타리클럽에 더하여 지난해부터 미네소타 이다이나 로타리클럽까지 챙기는 해외 행사도 줄을 잇는다.

신세대 사업에도 많은 관심을 기울여 서창우 지역대표는 로타랙트 회원들에게는 아낌없이 주는 큰나무와 같은 존재가 되었고, 서울남산로타리클럽은 송실로타랙트와 서울간호대학교의 서울남산로타랙트를 후원하고 있다.

글로벌 보조금 사업

서울남산로타리클럽은 2016-17 로타리 재단 글로벌 보조금 사업(Global Grant Project)을 수행하여, 지난 11월 27일 서울시 중구 신당동 소재 동화나라 어린이집에서 ‘로타리 공부방’ 준공식을 거행하였다. 2016년 7월 봉사프로젝트 위원장이 사단법인 서울가톨릭사회복지회를 방문하면서 시작된 글로벌 보조금 사업은 여러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당초 계획보다 상당히 지체되어, 장장 16개월에 걸친 사업으로 진행되었다.

이번 글로벌 보조금 사업에는 RI 3650지구에서 DDF 1만불, 서울남산로타리클럽에서 현금 약 5천 3백불, 대만 RI



3500지구에서 DDF 9천불, 그리고 RI 3630지구 서의성로타리클럽에서 현금 6천 3백불을 기부하였으며, 각 클럽과 지구의 자금에 대한 글로벌 매칭펀드 약 2만불 등 총 5만 5백불의 기금이 조성되었다. 이 기금으로 동화나라 어린이집의 창문 교체, 로타리 공부방 조성, 송화 어린이집의 악기 및 교육 교재 구입, 그리고 AIDS 환자 수용시설인 새빛 공동체의 전자제품 교체 사업을 진행하였다.

본 사업을 주도한 RI 3650지구와 서울남산로타리클럽은 물론 대만 RI 3500지구, 서의성로타리클럽이 마지막까지 관심을 갖고 참여하여 무사히 마칠 수 있었다. 특히 RI 3650지구의 김정호 사무국장의 헌신적인 노력은 RI의 보조금 승인과정을 통과하는데 큰 힘이 되었다.

11월 하순 쌀쌀한 날씨 속에 거행된 기념 행사에서는 30여명의 아동들이 합창 공연을 갖는 등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진행되었다. 본 사업에 대한 공로로 서울남산로타리클럽은 중구청장으로부터 감사장을 수여 받았고, 서의성로타리클럽과 서울남산로타리클럽 회장에게 다문화 가정 어린이들이 직접 만든 감사카드와 꽃다발을 증정하는 아름다운 장면도 연출되었다.

서울남산로타리클럽은 2017-18 사업년도에도 서울대병원과 협력하여 도움이 필요한 어린이 환자 치료를 후원하는 새로운 글로벌 보조금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텍시도의 밤

34년전 꽃다운 청춘이었을 Charter 멤버들은 여전히 그 시절, 그 마음으로 로타리모임에 나오시는 것 같다. 모임에 나오시면 무엇이 이분들을 늘 약간 들떠있게 만드는 것인가 나는 아직 잘 모르겠다. 매주 이어지는 로타리 활동을 한 삼십년쯤 하고 나면 나도 조금 이해가 될까? 선배들이 어딘가 감추어두었을 것만 같은 파랑새를 찾아 서울남산의 주니어 멤버들은 오늘도 여기 저기를 두리번거리고 있다.

예술을 통한 봉사, 서울아르떼 로타리클럽



글. 서울아르떼RC 회장 백연옥

서울아르떼로타리클럽(Rotary Club of Seoul Arte)은 2009년 11월 27일 서울예장에 소속된 박인자 회원이 총재특별대표로 창립했다. ‘Arte’ 는 라틴어로 ‘예술(art)’ 을 뜻한다. 클럽의 명칭이 암시하는 대로 서울아르떼로타리클럽의 회원들은 무용 음악 연극 등d[종사하는 예술가들과 이사 변호사 기업임원 평론가 대학교수 예술을 사랑하는 전문직 종사자들로 구성되어 있다. 2018년 1월 현재 클럽 회원수는 15명이다. 2011-12년도 지구대회 우수 클럽, 2012-13년도 모범 클럽, 연수참가 우수 클럽 표창을 받았으며, 2016년 서

울세계대회 때는 클럽 회원들 대다수가 주요 직책을 맡아 성공적인 개최에 힘을 보탰다.

회원 대다수가 전문직 종사자들로 구성되어 있어 다양한 라이프 타임으로 인해 로타리 활동에 제약을 받고 있지만 회원들은 바쁜 시간 쏙개어 매달 정기주회 외에 음악 무용 연극 등의 공연을 보거나 라인댄스 등을 직업 배워보는 이벤트 주회를 함께 시행하고 있으며, 노숙자들을 위한 무료급식 배급 및 설거지 봉사, 환경봉사 외에 정기적으로 예술을 통한 봉사활동을 펼치고 있다.

지난해 12월 2일에는 ‘어르신들과 함께 하는 아름다운





예술 공연'을 계원예술학교 학생들과 함께 가졌다. 경기도 고양시 일산에 소재한 '행복한 요양원'에서 있었던 이 봉사활동에는 무용과 음악을 전공하는 계원예술학교 학생 20여명과 학부모 교사, 그리고 아르페로타리클럽 회원들이 참가했다.

독창 중창 한국무용과 발레 등 9개의 작품이 공연되었고, 공연 후에는 어르신들을 위해 안마해주기, 그담소를 나누는 봉사 시간을 가졌다.

예술 나눔 봉사에 참여한 계원학교 학생들은 이날 공연을 위해 한 달여 동안 학교 수업 후 연습을 했고, 공연 당일에는 경기도 분당에서 1시간이 훨씬 넘게 걸려 버스로 이동했다. 공연과 봉사활동 후 학생들은 전공하는 예술을 통해 사회를 위해,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 뭔가 도움이 되는 일을 했다는 것에 큰 자부심을 느꼈다며 고마워했다.

이날 공연된 프로그램과 출연자들은 다음과 같다.

■ 프로그램 및 출연자

1. 중창-연주곡목 : 나무의 노래, 뭉게구름, 고향의 봄
출연자 : 피아노 송유민, 성악 조예린, 성악 한재연, 성악 박김예영
 2. 비상(한국무용) 출연자 : 강지훈, 최유진, 김명주, 김민지
 3. 피치카토(발레) 출연자 : 이수, 윤다영
 4. 파키타 보석 솔로(발레) 출연자 : 오지수
 5. 장구춤(한국무용) 출연자 : 최유민, 김효서
 6. 한량무(한국무용) 출연자 : 강지훈
 7. 스페니쉬(발레) 출연자 : 김채아, 한하민, 엄세현
 8. 세기달리아(발레)
출연자 : 김민주, 안태연, 정혜윤, 최예주, 박수빈, 박소민
 9. 가인여곡 출연자 : 김은, 김보민, 장하나, 박소연, 장예원, 김민지
- *인솔교사 백연옥, 유경진, 김정화, 정수경

서울아르페로타리클럽은 2012년에도 예술을 통한 봉사 공연 개최로 큰 화제를 모았었다. 서대문 구청과 서대문문화예술회관을 연계해 치른 서대문구 어르신들을 위한 '예술과 함께하는 행복한 삶' 봉사활동이 그것이었다. 012년 12월 21일 서대문문화회관 소극장에서 가지 이 행사는 서대문구에 거주하는 독거 노인 등 소외 계층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한 이 봉사 프로젝트는 서울아르페로타리클럽이 주관하고 국제로타리 3650지구 3지역 새서울, 서서울, 서울안암, 서울남산, 서울상록, 서울예장, 서울청신, 서울뉴광진 로타리클럽이 협력했었다.

서울아르페로타리클럽 회원들은 3650 지구의 효율적 클럽 운용을 위해 다음과 같이 몇 가지 제안을 드린 적도 있다.

첫째, 지구 차원에서 소속 회원들과 직접 소통할 수 있는 채널을 더욱 확대해야 합니다.

둘째, 클럽 회장, 총무 및 지구임원 월례회의는 더 많은 소통이 필요합니다.

셋째, 총재 방문 주회는 로타리 클럽의 가치와 로타리안으로서의 자부심을 확인할 수 있는 자리가 되어야 합니다.

넷째, 회원 증강 및 유지 전략에 대한 개선 - 회원증강만을 부추기는 것은 지양해야 합니다.

다섯째, 진정성이 느껴지는 클럽 활동이 중요합니다.

'홍보' 보다는 진정한 봉사의 의미를 공유해야 합니다.

서울예장로타리클럽 문화 예술을 통한 봉사의 새 의미 찾기



글. 서울예장RC 회장 황순신



서울예장로타리클럽은 1996년 2월28일 이종덕 초대 창립회장을 시작으로 23대 황순신회장에 이르렀다. 우리 클럽은 국내 문화예술계를 대표하는 인사들과 문화를 사랑하는 CEO 및 각층의 전문가들로 구성되었으며, 현재 회원은 36명이 활동 중이다.

“MAKING A DIFFERENCE(변화를 만들자)”라는 이안 라이즐리 국제로타리 회장이 제시한 테마에 맞추어 우리 클럽에서도 봉사에 큰 변화를 강조하여 지속가능하며 로타리 봉사의 가치를 높이는 봉사활동을 계획, 실천하고 있다.

또한 문화예술분야 회원들의 국내외 활발한 활동으로 회원들의 공연, 전시에 참석하는 것 만으로도 자연스러운 친목도모와 함께 문화와 예술이 있는 클럽, 문화와 예술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클럽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2017-18년 활동현황

1. 재단 기부 및 회원증강

재단기부 PHF 8구좌 목표달성 완료
위성클럽 창립 추진으로 회원증강 목표

2. 해외자매클럽 방문

일본 요나고東로타리클럽 50주년 기념식 참석예정
(2018년 5월18일~20일)

3. 국내외 봉사활동

성라자로마을(한센인 사업기관) 후원 및 봉사활동
파주보육원 프로그램봉사(공연, 전시 초대 및 재능기부)
글로벌 보조금을 통한 방글라데시 농촌지역에 학교설립 추진

